

“떠나면……어른이 되는 거잖아.”

마주 서 있는 아나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와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피리와 허리춤에 걸고 있는 라이트 세이버도 덩달아 흔들렸다. 당연하고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괏값 앞에서 오히려 태연한 쪽은 오비완이었다. 그는 부정조차 하지 않았다. 아주 잠깐 다녀오는 것이라는, 되돌아오리라는 희망조차 남겨 놓지 않았다. 일그러지는 아나킨의 얼굴과 달리, 오비완은 자신이 이토록 차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랐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지루함을 가감 없이 드러내던 아름다운 얼굴은, 오비완의 말 한마디에 다채로움 대신에 거무죽죽한 서운함을 뒤집어썼다.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오비완은 생각했다. 아나킨은, 꿈과 희망의 나라 코러스산트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의 상징인 스카이워커는, 생기를 잃어서는 안 됐다. 그리고 그 생기를 더 잃어버리기 전에, 끌어내야 함을 느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는 거야?”

암묵적으로 답이 나온 질문에도 재차 물어오는 말투가 간절하다. 아나킨의 애탄 눈동자에서 비치는 바람을 읽기는 어렵지 않았다. 거짓말이라도 해달라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라고. 집이 그리워서 가족이 그리워서 그런 것이라고. 금방 다시 돌아와서 그와 평생, 이 늙지 않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오비완은 이를 읽어내었으나 애써 무시했다. 입을 여는 대신에 비껴가는 시선으로 답을 주었다. 어설픔게 여지를 남기는 행동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가 되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

문일지도 몰랐다. 지금 아나킨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감히 궁금해할 자격도 없는 물음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고개를 바로하고 돌려놓을 자신도 없었다.

그는 아나킨을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여느 아이들과 다르게, 오비완은 밤이면 밤마다 머리맡에 스카이워커 책을 두고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남자아이였다. 특히 양부인 콰이곤이 무심하게 굴 때면 동화에 더욱 집착을 보이곤 했다. *공부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니. 내년이면 벌써 상급 학교에 가야 할 나이란다.* 그에게 감정적인 지지나 따스한 말이 아니라 현실을 들이밀수록 오비완은 더욱 어둠 속에서 상상의 바다를 헤엄쳐 다녔다. 어른이 되기 전의 아이들만이 갈 수 있다는 코러산트의 이야기. 특히나 거기서 제일 멋지고 유명한 스카이워커 이야기를 동경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적을 무찌르고, 자기 부대를 멋지게 이끌고 승리를 쟁취하는 단순하고도 간결한 이야기에 매료됐다. 더러는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아서 애들이나 읽는 동화책에 빠져 있다고 수군거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상상은 그에게 최후의 보루이자 도피처였다. 그랬기에, 그토록 간절하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오비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넋을 놓고 있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야. 너는?’

‘오비완…… ㄱ……’

‘오비완이면 충분해.’

사실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자신감이 넘쳤고 아름다웠으며 재밌었다. 호쾌하게 방 안을 날아다니며 재잘거리는 모양새는, 교실 속에서 무의미하게 처박혀 시들 거리던 친구들과는 달랐다. 또래 남자아이들과 큰 마찰은 없더라도 딱히 절친을 만들지도 않았던 오비완에게 반짝거리는 동갑내기 요정의 존재는 충격 그 자체였다. 화사하고 눈부시고 빛나는 존재. 아나킨이 날아다니면 반짝거리는 가루가 발끝에서 떨어졌고, 불빛이 없

어도 환하였다. 시원한 웃음소리를 따라서 웃다 보면 콰이곤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조차 잊었다. 꿈에 그리던 모습보다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치던 그림 같은 아이는, 현실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현실은 여전히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중요치 않았다.

아나킨은 처음부터 그에게 무한한 관심을 보내왔다. 요즘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네? 푸르른 눈동자는 넘치는 관심과 미소를 갖고 오비완을 향해 있었다. 마치 자기를 알아봐 준 것이 무척이나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나킨은 다정하고 친절했다. 평생 받아본 경험이 없는 온기와 즐거움을 주었고, 오비완은 열결에 그것들을 모두 품 안으로 받아내었다. 처음에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당황하거나 불편해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도 무엇도 필요 없는 순수한 호의가 오비완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건, 시간문제였다.

너, 나랑 같이 갈래?

며칠 밤을 꾸준히 찾아오던 아나킨이 손을 내밀면서 한 말이었다. 달을 등지고 서 있는 아나킨의 표정이 어떠하였는지, 지금으로서는 오비완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현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았다. 설사 그것이 즉흥적인 물음이었다고 하여도 말이다. 그에게 우선이었던 것은 코앞에 내밀어진 기회였다.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미련 없이, 오비완은 그 손을 잡았다.

“어른이 되면…….”

“다시 이곳에 못 오겠지.”

어렵듯이 알고 있기라도 했을까? 구원과 추락은 동의어일 수도 있다는 걸. 허공에 내딛는 발이, 반짝이는 마법 가루가 없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장담할 수 없었다. 기실, 아나킨의 손을 잡을 당시의 오비완은, 자신이 꿈쩍한 현실 세계로 다시는 돌아가

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어찌 되어도 좋았다. 지긋지긋한 현실의 문제들 따위. 그저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이어도 좋으니, 계속 꿈속에서 유명하고 싶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람 옆에서 말이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는지도 몰랐다. 그가 너무나 빛나는 사람을 쉽게 사랑해 버려서. 거의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미 아나킨의 손을 잡았을 때, 오비완은 스스로 눈이 멀었음을 알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보질 못했다. 내리쬐는 빛의 파스함에 사로잡혀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태양과도 같은 빛이라는 사실을 간과해버린 것이다.

‘괜한 희망 주지 마.’

돌이켜보면, 아소카는 그들 중에서 이런 결말을 가장 먼저 직감했을지도 모르겠다. 항상 아나킨 곁에서 날아다니던 그녀는, 처음부터 오비완을 데려가는 일이 불만인 듯이 보였다. 특별히 언질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거부 의사를 비추고 있었다. 오비완은 그런 아소카를 절대 편하게 대하지 못했다. 아나킨과 떠나기로 결정한 날, 포스가루를 뿌려주면서까지 아소카는 못마땅한 얼굴이었다. 아나킨의 부탁이니 어쩔 수 없이 겨우 허락한다는 표정. 그러면서 들으라는 듯이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아마 그건 오비완에게 하는 말이었으리라. 하지만 이제는 어디로 향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되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너는 떠날 사람이잖아.’

몸이 붕 떠올라서는 신기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아소카는 귓속말을 하면서 덧붙였다. 일종의 경고였다. 언젠가 다시 집이 그리워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평생 친구가 될 것처럼 굴지 말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아나킨에게 뒤집으면 이런 말이 되었다.

널 사랑하게 만들지 마.

처음에는 아소카의 경계심이 불편하여 눈치를 살피기도 하였다, 하지만 코러산트에 있으면서 오비완은 깨달았다. 그녀는 오비완이 싫은 것이 아니었다. 다만, 아나킨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코러산트를 거쳐 갔으며, 그 과정에서 코러산트에 남은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한 말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대체로 집이 그림거나, 부모님이 보고 싶거나, 현실의 문제로- 코러산트에 오래 있지 않고 떠나갔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나킨은 어김없이 상처받았다. 아나킨은 코러산트의 모든 존재들을 아꼈지만, 그곳에 아나킨 또래의 남자아이는 없었다. 그렇다 보니 같은 성별과 또래의 친구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였다. 운이 좋게도 오비완은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추면서도 스카이워커를 믿는 아이였기에, 아나킨이 쉽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운이 없던 지점은? 오비완이 아나킨에게 친구 이상을 바라고 있다는 걸, 자각해 버린 데에 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아나킨.”

그래도 참고 지내보려고 하였다.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는, 절대로 돌아가기 싫다고 외치고 있었다. 좋은 친구로라도 곁에 남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하지만 아나킨이 팰퍼틴 선장 손에서 인디언 족장의 딸인 파드메를 구해내는 걸 본 순간, 오비완은 질척하고도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손과 발은 차가운데 가슴에서부터 핫핫하게 올라오는 분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그는 축하 파티에서 춤을 추지 않고 장작을 가지러 도망갔다. 나중에 아나킨이 어디에 있었냐고, 렉스와 다른 애들이 찾으러 갔는데도 없어서 애먹었다고 하는 말에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다. 치졸하게 올라오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물어뜯은 손톱을 감추기 위해서 손을 주머니 속에 넣고 말이다. 파드메를 안아 올려 구출해 오는 표정에서부터 알 수 있었다. 아나킨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다

르다는 걸 말이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자연스레 체득되는 지식과 같았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때론, 말로 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진실이 훨씬 잔인했다.

진실과 감정의 저울질 사이에서, 그는 균형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진심으로 아나킨을 사랑한다면, 그가 하는 사랑이 자신을 향하지 않더라도 박수를 보내고 축하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사랑만 해도 돼*. 그런 생각으로 버텼다. 단순한 호의로 만족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경멸하면서, 애써 웃음을 띄운 얼굴 아래로 낮부끄러운 질투를 숨기며. 파드메에게 향하는 시선이 부러움을 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하지만 늘 상 그렇듯, 현실은 이상에 미치지질 못했다. 들키지 않으려고 껍썩 접어서 짓밟아도 기어이 사랑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물어왔다.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사랑하지?* 그 질문이 들이 밀어지면, 오비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네가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견딜 수 없던 점은, 절대 죽지도 늙지도 않는 이 상태로 영원히 아나킨을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꿈과 환상의 공간이, 도리어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셈이다.

“보내줘.”

결과적으로는 아소카가 옳았다. 그는 아나킨을 상처 입힐 것이다. 아나킨이 제일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혹독하고 무자비하게. 모질게 입을 열었다. 아나킨은 끝내 모르리라. 그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단지 이제껏 코러산트를 거쳐 간 많은 아이들과 똑같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잊을 수 있으리라.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도, 웃었던 나날들도, 오비완 케노비라는 존재까지. 그는 울컥하고 올라오려는 감정을 목 아래로 삼켜 넘겼다. 차라리 이쪽이 쉬웠다. 상처 입은 걸 감추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아프다고 호소하고 봐달라고 애원하는

쪽보다 간편했다. 게다가 호소한다고 하여서 달라질지 아닐지 가
늠할 수 없다면, 명확한 쪽을 선택하리라.

“집에 가고 싶어.”